

# 남구 '어르신 AI·IoT 기반 디바이스 보급' 확대

### 사업 신규 참여자 4~7배 늘려 활동량계 등 5종류 기기 지원

광주 남구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첨단 디바이스를 활용해 기초건강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남구는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 참여자 비율을 전년보다 4배 가량 늘려 어르신 420명에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디바이스 지원에 나선다.

AI·IoT 기반 건강관리 사업은 관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특화 사업으로 남구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주관 'AI·IoT 기술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뒤 매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선정 이후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향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식생활 개선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 2022년 정부 주관 '지자체 건강증진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성과 평가'에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남구는 어르신들의 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신규 참가자 모집 규모를 420명까지 확대했다.

지난 2022년의 60명과 2023년 110명에 비교해 모집 인원을 4~7배까지 늘린 것이다.

남구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신규 참여자 420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 검사와 만성질환 현황 등 사전평가를 실시, 개별 건강 상태에 맞춰 △활동량계를 비롯해 △체중계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AI스피커까지 5가지 디바이스 중 어르신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기기를 제공할 방침이다.

디바이스 연동 및 매일 어르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오늘건강' 앱 사용법에 대



광주 남구는 건강관리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디바이스를 보급하는 등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광주 남구 제공**

해 교육하고, 유선전화 및 앱 푸시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건강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9월~10월 참가 어르신의 기초건강 검사와 만성질환 관리현황을 재진단하는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목표치를 달성한 어르신에게도 인센티브로 건강관리 용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올해 신규 참여자 모집이 이미 완료됐는데 흑여 결원이 발생하면 추가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관내 어르신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nilbo.com

###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제안 이재에 동구의원



광주 동구의회 이재(사진) 의원이 제 30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근 공무원 노조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 중 각종 폭언, 인격모독, 욕설, 심지어 상해 협박 등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보호 매뉴얼을 보완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예방적 차원으로 △영상 자료를 통한 대응 교육 △보디캠의 적극 활용 △공직자 신상 비공개 전환 등을 제시하고, 피해 발생시 대처 방안으로 △전담 대응 팀 운영 △민원 피해 관리 시스템 구축 △민원 심판관 운영 등을 제안했다. **송민섭 기자**

### 출산장려·양육지원 의견 수렴 이숙희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는 이숙희 북구의원이 지난 23일 출산장려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학부모 및 관계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지원' 위주의 정책을 '양육지원'까지 확대시키고, 임신부 및 영유아,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모였다.

이숙희 북구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실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광주 남구 소확행 나눔장터가 오는 27일부터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에서 열린다. **광주 남구 제공**

### 지역돌봄 통합지원 회의 서구청 나눔홀

광주 서구는 지난 23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제3기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설명, 서구 통합돌봄 추진현황 보고 등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광주서구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물리치료사회·작업치료사회 △보건복지분야의 학계·기관 등 관계 전문가들이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전국화 준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거동 불편으로 정보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접근성 강화 △장기요양 판정결과를 토대로 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총돌 해결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유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강주비 기자**

###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 MOU 서구, 11개 기관 민관 협력

광주 서구는 지난 23일 서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등 11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로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린다.

사회적 돌봄망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에서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개 기관을 추가해 협약을 맺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년들이 가족의 돌봄문제로 똑같은 출발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 남구, 27일 소확행 나눔장터 개최

###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공유경제·나눔문화 거점 육성

광주 남구는 나눔을 통해 행복까지 교환하는 소확행 나눔장터를 개최한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2024년 소확행 나눔장터가 오는 27일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에서 첫 개장을 시작으로 5월과 9월, 10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소확행 나눔장터는 백운광장 일대를 공유 경제와 나눔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자원 재활용을 바탕으로 전시 작품

을 비롯한 문화공연과 각종 체험의 장까지 집적화해 관내 주민 간 활발한 소통까지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확행 나눔장터에서는 물품 나눔과 전시나눔, 정보나눔, 체험나눔, 공연나눔까지 5개 나눔 마당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 나눔장터의 경우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와 비교해 체험과 정보, 공연 분야의 나눔 마당을 더 확대해 진행한다.

제1회 소확행 나눔장터는 오는 27일 오후 2시~6시까지 스트리트 푸드존 일원에서 펼쳐진다.

물품 나눔 마당에서는 본인 소장품을 비롯해 수제품, 중고 물품을 판매하며, 전시 마당은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체험 나눔과 정보나눔, 공연 나눔 마당에서는 소소한 행복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

먼저 체험 나눔 마당에서는 타로 카드를 비롯해 인생네트, 캐리커처 등 10가지 종류 체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연 나눔 마당에는 가수 진이랑씨와 한길로씨의 버스킹과 풍선 묘기, 버블 마술쇼가 펼쳐지며, 정보 나눔 마당에서는 정신건강과 지방세, 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정상이 기자**

## 광산구,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새 단장

### 주민 민원 편의 개선... 29일부터

광주 광산구는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29일부터 '송정다누리' 복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동안 민간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해 왔다. 송정1동

복합청사가 준공돼 가장 먼저 입주한다. '송정다누리'는 생활 기반 시설(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건립이 추진돼 지난 3월 준공됐다. 연면적 약 5228㎡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다.

기존 행정사무 위주의 대민 서비스 공간에 문화·체육공간을 더해 지역 주민의

소통과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의 복합청사 이전으로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 민원 편의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복돋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 청소년 금융역량강화 '맞손' 북구-신한은행

광주 북구는 신한은행과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청소년 맞춤형 금융교육을 북구에 무상 제공한다. 북구는 교육 수요자를 발굴하는 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교육을 받는 청소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융바우처도 제공한다. 2만원이 입금된 주택 청약 계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금융생활 입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는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를 주축으로 금융교육 수요조사를 시행한 뒤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요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